

특수교사들의 임용시험 실패 요인과 성공 요인에 관한 질적 연구

박미정^{1*}, 남윤석²

¹위덕대학교 특수교육학부 교수, ²위덕대학교 특수교육학부 교수

A Qualitative Study into Special Education Teachers' Failure and Success Factors in Teacher Recruitment Examinations

Mee-Jung Pack^{1*}, Yun-Sug Nam²

¹Professor, Division of Special Education, Uiduk University

²Professor, Division of Special Education, Uiduk University

요약 이 연구에서는 임용시험에서의 실패와 성공을 경험한 특수교사들의 임용시험 실패 요인과 성공 요인이 무엇인지를 탐구하였다. 24명의 특수교사들과 반구조화된 면담을 실시하였으며, 면담 자료의 연속적 비교 분석을 통해 12개의 의미 있는 주제를 추출하였다. 연구 결과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특수교사들은 임용시험 실패 요인을 남 따라 하기식의 공부, 실패를 부르는 공부전략, 무조건 달달 외우기, 비효율적인 스터디, 불안함과 자신감 부족, 내가 나를 관리하지 못함에 두었다. 둘째, 특수교사들은 임용시험 성공 요인을 자신만의 공부 스타일, 올바른 공부전략, 이해와 암기의 조화, 모두가 득이 되는 스터디, 긍정적인 마음가짐, 무너지지 않는 자신만의 루틴에서 찾았다. 이러한 연구 결과를 임용시험 준비과정에서 실제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제언하였다.

주제어 : 특수교사, 임용시험, 실패 요인, 성공 요인, 질적 연구

Abstract This study aimed at finding out special education teachers' failure and success factors in teacher recruitment examinations. Total of 24 special education teachers participated in the semi-structured interview and 12 separate semantic themes were extracted via continuous comparative analysis on the interview contents. The findings were the following. First, the identified factors for the failures on the examinations were merely following what others do, failure-causing learning strategies, unconditional memorization, ineffective study groups, anxiety and lack of confidence, and lack self-management issue. Second, the identified factors for the success on the examinations were my style of study habits, success-causing learning strategies, balance of understanding and memorization, effective study groups, positivity, and strong self routine. The research proposes several practical applications to prepare the exam regarding this results.

Key Words : Special education teacher, Teacher recruitment examinations, Factors of failure, Factors of success, Qualitative study

*This work was supported by Uiduk University Foundation Grant, 2018.

*Corresponding Author : Mee-Jung Pack(mjp321@uu.ac.kr)

Received July 12, 2019

Revised August 7, 2019

Accepted August 20, 2019

Published August 28, 2019

1. 서론

1.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우리나라에서 국공립학교의 교사가 되기 위해서는 1991년부터 시작된 교원 임용시험에 응시하여 합격해야만 한다. 때문에 유치원 교사, 초등학교 교사, 중등학교 교사를 희망하는 많은 예비교사들이 임용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 생활을 경험하게 된다고 할 수 있다. 짧게는 4학년 동안 1년간 임용시험을 준비하고 합격할 수도 있지만, 임용시험 경쟁력이 높은 최근에는 재수, 삼수, n수를 경험하는 수험생들이 많은 것이 사실이다. 이들 수험생들은 대개 임용시험에 합격하자마자 교육현장에 발령받아 학생들을 지도하게 되는데, 이들이 학생들과 마주하기 직전의 주요한 경험이 임용시험을 준비하고 치르는 경험인 것이다. 다시 말해 임용시험을 준비하고 치르는 수험생들의 경험은, 이들이 교육현장에 발령받아 학생들을 지도하기 위해 갖추어야 할 조건이고 피할 수 없는 자격이 되는 셈이다.

지금까지 임용시험에 관한 많은 연구들이 임용시험 문제를 분석하거나 임용시험 제도 운영에서의 개선점을 찾기 위한 연구들로 이루어져 왔다[1-3]. 그런데 최근에는 질적 연구방법론을 활용하여 여러 사람들의 경험을 탐구하려는 연구들[4,5]과 함께, 임용시험을 준비하고 경험하는 수험생들의 임용시험 경험에 관한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공립유치원 교사들의 임용시험에 관한 연구들[6,7]과 초등학교원 임용시험 수험생들의 경험과 학습에 관한 연구[8]가 이루어졌다. 또한 중등 체육교과를 중심으로 임용시험 경험에 관한 근거이론적 연구[9]와 내러티브 탐구[10]가 이루어졌다. 이 외에도 예비체육교사의 임용시험 준비 경험에 관한 연구[11]와 중등 기간제 교사들의 임용시험 준비 경험에 관한 연구[12]가 이루어졌다.

신수빈과 이대균[6]은 공립유치원 교사가 되기 위해 3년 이상의 수험생활을 한 수험생들의 어려움과 실패 원인을 탐색하였고, 최혜진과 권유선[7]은 공립유치원 교원 임용시험에 합격하여 임용된 초임교사들의 임용시험 경험 이야기를 통해 임용시험 준비과정에서의 실패와 성공 경험들이 초임교사로 살아가는데 어떤 의미를 갖는지 탐색하였다. 또한 최진영과 조현희[8]는 초등학교원 임용시험을 준비하고 응시하는 과정에서 수험생들이 무엇을 경험하였는지, 그리고 이러한 경험을 통해 무엇을 학습하였는지 밝히고자 하였다.

그리고 김동현과 박영우[9]는 체육교육학과 학생들이 임용시험 준비과정에서 어떤 어려움을 겪으며, 그러한 어려움

들을 어떻게 해결해 나가는지에 대한 과정을 탐색하고자 하였고, 김동현[10]은 체육교과 교원 임용시험 삼수생인 자신의 삶에 관한 내러티브 연구를 통해 임용시험이 수험생 자신에게 주는 삶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탐구하였다. 또한 박종률[11]은 중등 예비체육교사의 임용시험 준비 경험을 실천과 의미라는 관점에서 구체적이고 단계적으로 드러내고자 하였다. 민은영과 장유진[12]은 교원 임용시험을 준비하고 있는 기간제 교사들이 교직 생활을 선택한 이유와 임용시험을 준비하면서 겪는 어려움을 탐색하였다.

이러한 선행연구들을 종합해 보면, 임용시험 경험에 관한 연구에는 유치원 교사로부터 초등학교 교사, 중등학교 교사, 여러 차례 임용시험을 경험한 삼수생이나 기간제 교사까지 다양한 교사들이 참여하였다. 그리고 이 연구들은 임용시험 준비과정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진행되고 무엇을 경험하고 학습하게 되는지[8,11], 임용시험 준비과정에서 어떤 어려움을 겪고 어떻게 해결해 나갔는지[6,9,12], 임용시험 경험이 수험생 자신에게나 이후의 교사로서의 삶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7,10]를 연구 주제로 다루었다. 이러한 연구들은 수험생의 임용시험 경험 속에서 임용시험 실패 요인이나 성공 요인 자체에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실패 경험이나 성공 경험을 부분적으로 다루고 있다.

이렇게 국공립학교의 교사가 되어가는 과정에서의 임용시험에 관한 여러 연구들이 활발하게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특수교육 분야에서는 관련 연구를 찾아보기 어렵다. 유아특수교사 임용시험 준비 및 응시 경험을 토대로 한 연구[13]와 중등특수교사 임용시험에 합격한 특수교사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14]가 이루어진 것이 전부이다. 더구나 이 연구들은 앞서 소개한 연구들과는 달리, 연구에 참여한 특수교사들의 임용시험 경험 자체에 초점을 두기보다는 교원양성기관과 임용시험 제도의 개선 방안을 도출하는 데에 초점을 두고 있다.

실패는 아프지만, 성장을 위한 디딤돌 역할을 할 수 있다고 한다. 많은 특수교사들이 임용시험에 도전하면서 한두 번의 실패를 경험할 수 있다. 이러한 실패가 좌절과 포기로 이어지기도 하지만, 특수교사로 성장하는 데 도움이 되는 소중한 실패의 경험이 될 수도 있다. 이에 이 연구에서는 임용시험 실패 경험과 실패를 딛고 일어서는 성공 경험을 한 특수교사들의 임용시험 실패와 성공 경험을 토대로 그들의 임용시험 실패 요인과 성공 요인이 무엇인지를 탐구해 보고자 한다. 이러한 탐구의 결과는 관련 선행연구들에서 부분적으로 다루고 있는 임용시험 실패 요인과 성공 요인을 구

체적으로 밝혀줌으로써, 앞으로 임용시험을 준비하는 수많은 교사들의 학습 방향을 안내하고, 교사양성기관의 교육 방향을 안내하는 기초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1.2 연구 질문

이 연구는 임용시험 실패와 성공을 경험해 본 특수교사들을 대상으로 그들의 임용시험 실패 요인과 성공 요인을 탐구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연구 질문은 다음과 같다.

첫째, 임용시험 실패를 경험해 본 특수교사들의 임용 시험 실패 요인은 무엇인가?

둘째, 임용시험 실패를 딛고 성공을 경험해 본 특수교사들의 임용시험 성공 요인은 무엇인가?

2. 연구 방법

2.1 연구 참여자 선정

이 연구에서는 연구 목적에 따라 임용시험에서 실패와 성공을 경험해 본 특수교사들을 연구 참여자로 선정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선정 기준에 적합한 특수교사들을 목표표집 하였다.

첫째, 특수교사 임용시험을 준비하면서 1회 이상 실패를 경험한 자.

둘째, 최근 5년 이내의 특수교사 임용시험에 최종 합격한 자

셋째, 특수교사로 발령 받은 이후의 교육경력 1년 이상 된 자.

특수교사 양성대학에 근무하는 교수들로부터 선정 기준에 적합한 특수교사 40명을 추천받았으며, 추천받은 이들과의 연락을 통해 연구의 목적을 충분히 설명하고 익명을 약속한 후, 연구 참여에 동의한 최종 24명의 특수교사들을 연구 참여자로 선정하였다. 연구 참여자들의 일반적 정보는 Table 1과 같다.

연구 참여자 24명의 일반적 정보를 살펴보면, 성별은 여성 13명(54.2%), 남성 11명(45.2%)으로 구성되었다. 연령은 평균 32세 정도이며, 26세에서 38세까지로 구성되었다. 소지자격은 초등특수교사가 15명, 중등특수교사가 9명으로 이루어졌다. 임용시험 도전 횟수는 평균 3.6회 정도이며, 2회에서 7회까지로 구성되었다. 최초 발령년도는 2013학년도에서부터 2018학년도까지로 구성되었다. 교육

경력 4년 정도이며, 직계는 1년에서부터 많게는 7년까지로 구성되었다.

Table 1. Research Participants

No.	Gender	Age	type of qualification	number of exams taken	year of success	educational background
T01	female	32	elementary	4	2013	6
T02	male	34	elementary	4	2014	6
T03	female	34	elementary	5	2013	7
T04	female	26	elementary	2	2018	1
T05	female	26	elementary	2	2018	1
T06	female	30	elementary	6	2017	3
T07	male	31	elementary	4	2018	1
T08	female	28	elementary	4	2018	1
T09	female	35	elementary	2	2015	4
T10	female	31	elementary	2	2013	6
T11	male	32	elementary	5	2016	3
T12	female	38	elementary	3	2015	4
T13	male	32	elementary	3	2013	6
T14	female	31	elementary	5	2018	1
T15	female	28	elementary	4	2018	1
T16	male	31	secondary	3	2016	3
T17	female	33	secondary	7	2015	7
T18	male	31	secondary	3	2017	2
T19	male	33	secondary	3	2013	6
T20	female	33	secondary	4	2013	6
T21	male	31	secondary	2	2015	4
T22	male	36	secondary	2	2015	4
T23	male	30	secondary	4	2017	3
T24	male	35	secondary	4	2013	6

2.2 면담 내용 구성

이 연구에서는 연구 참여자로 참여한 특수교사 24명의 임용시험 경험에서 실패 요인과 성공 요인을 찾아내기 위해 면담 내용을 사전에 구성하였다. 면담하고자 하는 주요 내용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되는데, 임용시험 실패 요인에 대한 이야기와 임용시험 실패 극복(성공)의 요인에 대한 이야기로 구성하였다. 연구 참여자 개인의 경험과 생각을 충분히 담아내기 위해서 구성된 면담의 주요 내용이 연구 목적에 부합하는가를 확인하기 위해 임용시험 경험이 있고, 면담 연구를 통해 특수교육학 박사학위를 받은 교사 2인을 대상으로 하여 내용 타당도를 검증받았다. 최종적으로 완성된 면담의 주요 내용은 Table 2와 같다.

Table 2. Main contents of interview

category	main contents
stories about factors of failure on the exam	-factors of failure in cognitive perspective (study contents, previous exams, online lectures, etc.) -factors of failure in functional perspective (ways of studying, study groups, understanding & memorization, etc.) -factors of failure in affective perspective(habits, mentality, stress management etc.)
stories about factors of success on the exam	-factors of success in cognitive perspective (study contents, previous exams, online lectures, etc.) -factors of success in functional perspective (ways of studying, study groups, understanding & memorization, etc.) -factors of success in affective perspective (habits, mentality, stress management etc.)

2.3 자료 수집 및 분석

사전에 구성된 면담의 주요 내용을 참고하여, 연구 참여자 24명을 대상으로 반구조화된 면담을 실시하였다. 면담은 50분 내외로 진행되었으며, 면담 내용은 녹음되었으며, 면담 실시 이후에 바로 아래아 한글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전사하였다. 면담 자료 이외에도 합격수기를 간직하고 있는 연구 참여자 5명에게는 합격수기 파일을 받아서 분석 자료로 활용하였다. 합격수기를 포함한 전사내용의 분량은 A4 용지(글자크기 10, 줄간격 160, 자간 0)로 총 144쪽 분량이었다.

전사 내용을 반복적으로 읽으면서 연속적 비교법[15]을 활용하여 다음과 같이 분석하였다.

첫째, 연구자는 전사내용을 반복해서 읽으며, 절과 문장 수준에서 연구 주제와 관련한 의미를 찾아 메모 넣기를 하고 메모 내용이 드러날 수 있도록 간단한 메모 제목을 달았다. 메모 제목은 자료의 추적 및 목록화가 용이하도록 부호화하였다. 아래아 한글 프로그램의 메모 기능을 활용하였으며, 총 3회에 걸쳐서 반복 읽기를 통해 총 232개의 메모를 저장하였다.

둘째, 추출한 각 메모들은 마이크로소프트 엑셀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목록화하고 범주화 작업을 실시하였다. 먼저 듀얼 모니터를 활용하여 메모를 작성한 한글 파일과 엑셀 프로그램을 각 모니터에 띄운 후에, 한글 프로그램의 각 메모 제목과 간략한 메모 내용을 엑셀 프로그램으로 옮겼다. 각 메모 제목과 내용을 반복하여 읽으면서, 그 의미를 나타낼 수 있는 대표적인 어휘를 간략하게 새로운 셀에 기재하였다.

셋째, 새로운 셀에 기재된 내용을 기준으로 엑셀 프로그램의 정렬 기능과 찾기 기능을 활용하여 공통된 어휘가 포

합된 메모들을 한데 모아서 하위 주제를 형성하였다. 하위 주제들 간의 비교 분석을 통해서 유사한 속성을 지닌 하위 주제들을 모아서 상위 주제를 형성하였다.

이러한 분석 과정을 거쳐 임용시험 실패 요인과 성공 요인에서 각각 6개의 상위 주제를 추출하였다.

2.4 연구의 진실성 확보 노력

자료 분석의 진실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구성원 점검법(member check)과 삼각 검증법(triangulation), 동료 연구자 검토의 과정을 거쳤다. 구성원 점검법은 자료 분석의 결과를 연구 참여자들과 공유함으로써 부정확한 내용을 수정하고 의미를 명확히 하는 과정으로 삼았다. 삼각 검증법은 연구 참여자들이 제공한 면담 내용이나 합격수기에서 동일한 주제의 이야기가 전개되는지를 검토하는 방법으로, 이 연구에서는 3명 이상의 연구 참여자들에게서 동시에 나타나는 주제만을 연구 결과에 포함시켰다. 동료 연구자 검토는 질적 연구 경험이 있고, 특수교사 양성대학에서 근무하는 동료 연구자에게 자료 분석의 과정과 결과를 검토 받는 것으로, 이 연구에 참여하지 않은 동료 연구자 1인의 검토를 받았다.

3. 연구 결과

이 연구에서는 임용시험에서 실패와 성공을 경험한 특수 교사들의 임용시험 실패 요인과 성공 요인이 무엇인지를 탐구하고자 하였다. 연속적 비교 분석법을 통해 Table 3과 같이 실패 요인에 관한 6개의 의미 있는 주제와 성공 요인에 관한 6개의 의미 있는 주제들을 추출하였다. 실패 요인과 성공 요인에서의 각 주제들은 서로 대조적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연구 결과에서는 이들을 대비하여 진술하였다.

Table 3. Data analysis result

category	semantic themes
factors of failure on the exam	-merely following what others do -failure-causing learning strategies -unconditional memorization -ineffective study groups -anxiety and lack of confidence -lack self-management issue
factors of success on the exam	-my style of study habits -success-causing learning strategies -balance of understanding and memorization -effective study groups -positivity -strong self routine

3.1 남 따라 하기식의 공부 vs. 자신만의 공부 스타일

특수교사들은 임용시험 실패 요인을 남 따라 하기식의 공부 방법으로 언급하였다. 그렇게 남 따라 하기식의 공부를 하게 된 이유는 자신에게 맞는 공부 방법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기 때문이며, 다른 친구의 공부 방법이 좋아 보였기 때문이기도 하며, 진도를 쫓아가기에 바빠서 다른 사람의 속도를 따라가기 위함이었다고 한다. 이러한 남 따라 하기식의 공부 방법은 다른 사람과 자신을 비교하면서 못하거나 안 한 것에 집중하게 하면서 불안한 마음을 갖게 하였으며, 자신에게는 맞지 않는 방법이어서 오히려 공부 내용에 집중하지 못하는 결과를 가져왔으며, 진도에 집착하느라 학습 내용을 자신의 것으로 만드는 데에는 소홀하게 되는 결과를 가져오는 이유가 되었다.

내가 시험에 실패했던 가장 큰 원인은 공부방법이라고 생각해요. 나 자신에게 맞는 공부 방법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기 때문이지요. 나에게 맞는 공부 방법이나 관리 방법을 찾아 맞추어 실천하기 보다는 항상 다른 사람은 어떻게 하는지 무엇을 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듣고 따라하고 내가 하지 못하거나 안한 것들에 대해 불안했었어요. [T03 메모35]

내가 임용시험에 실패한 원인은 남을 따라하는 식의 공부를 했기 때문이에요. 총 4번의 임용시험을 준비하면서 4학년 때부터 3수까지 남의 공부 방법을 쫓아가기 바빴어요. 임용시험 준비가 굉장히 잘 되어가는 다른 친구의 공부 방법을 묻고 그것을 그대로 따라하곤 했었지요. 나는 실제로 암기력이 좋지 않고 이해를 하지 않으면 아무리 외우려고 노력해도 외워지지 않았었는데 다른 친구를 따라 외우기만 한다가나, 수험서 단권화를 해서 공부를 잘 하는 친구가 있다면 단권화에 치중하는 식의 따라가기 방식의 공부를 했어요. 그 외에 다양한 임용 후기들을 보았는데, 좋은 공부 방법이라고 생각되는 것들을 다 따라하려고 하니 오히려 내용에 집중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T20 메모197]

특수교사들은 남 따라 하기식의 잘못된 공부 방법 때문에 임용시험 실패를 경험하고, 이후에는 자신만의 공부 스타일을 찾아내고 실천해 념으로써 임용시험에 성공할 수 있었다고 하였다. 특수교육에서 장애학생 개개인의 특성에 맞는 개별화 교육을 실천하듯이, 지난 실패의 원인과 문제점을 철저히 돌아보며 자신에게 맞는 공부 방법을 찾아 실천하였다고 한다. 이렇게 자신만의 공부 스타일을 찾는 것이 중요한 이유는 임용시험을 준비하는 사람마다 학습을 받아들이는 속도와 양이 다르고, 학습하는 패턴이 다르기 때문이다. 또한, 남 따라 하기식의 공부 방법은 아무리 좋아 보여도 자신에게 맞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스트레스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자신만의 공부 스타일을 찾아 실천하게 되면, 다른 사람을 신경 쓰지 않으며, 불안해하지 않게 되고, 스트레스를 받지 않아 보다 효율적인 공부를 하게 되었다. 이렇게 남 따라

하기식의 공부에서 자신만의 공부 스타일로의 변화는 자신에 대한 믿음이 크게 작용하였으며, 자신만의 공부 스타일을 만들어가기 위한 노력을 통해 이루어졌다.

우리 학생들에게는 개별화라는 특수교육의 꽃을 선물해주어야 한다고 배워놓고 정작 나에게서는 실천하지 못했어요. 합격한 해에는 그동안 무엇이 문제였는지 철저히 반성하고 그에 맞게 준비했어. 앞에서 실패한 원인들을 나에게 맞게 바꾸고 다른 사람을 신경 쓰지 않고 불안해하지도 않고 나를 믿었어. [T03 메모37]

자신에게 맞는 가장 효과적인 학습 방법과 패턴을 찾는 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단순히 다른 사람의 합격수기를 보고 '나도 이렇게 똑같이 하면 합격하겠지.' 했다가는 안 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자신에게 맞는 학습 방법을 찾으면 크게 도움을 될 듯합니다. 개인마다 학습을 받아들이는 속도와 양은 다르기 때문에 이 부분은 본인이 시행착오를 겪어야 할 것 같습니다. [T17 메모161]

대부분의 사람들과 나는 달랐어요. 규칙적이지 못하고 야행성이고 엉덩이가 가볍고 게임도 좋아하고 집중력이 오래가지 못해서 남들이 하는 것과 나의 패턴이 달라서 엄청나게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어요. 이로 인해 원형탈모까지 와서 약 한 달을 쉬면서 내가 왜 이렇게 스트레스를 받아야 하는가에 대해 고민했었어요. 그때 내린 결론은 그들과 나는 다르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오래 앉아서 공부하는 스타일이면 나는 짧고 굵게 집중하는 스타일이고 아침 일찍부터 공부하는 사람이 있으면 나는 밤늦게까지 공부하는 스타일인 것을 알고 이것을 굳이 바꾸지 않고 믿고 진행하기로 했어요. 스트레스를 받으면서까지 남들처럼 공부하는 것은 도움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하반기부터는 집에서 공부하면서 길고 가늘게 보다는 내 방식대로 짧고 굵게 공부하고, 스트레스 해소를 위해 게임도 하면서 나만의 공부 스타일을 사용했어요. [T05 메모49]

어느 날 문득 삶의 의미를 발견하는 것이 아니라 매일 삶의 의미를 만들어 가듯이 내 공부 스타일도 찾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가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저는 공부를 좋아하거나 정말 잘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감히 공부를 좋아하고 계속 공부 잘하고 싶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전 저를 바꾸기 위해 노력했으니까요. [T01 합격수기 메모 21]

3.2 실패를 부르는 공부전략 vs. 올바른 공부전략

특수교사들은 임용시험에서 실패를 부르는 공부전략을 사용하였기 때문에 실패하였다고 언급하였다. 임용시험에서 무엇이 중요한지를 깨닫지 못하고 강의를 중심으로 한 공부전략, 정보의 홍수에서 자료 수집이나 정리에만 지나치게 몰입하는 공부전략, 임용시험 준비 과정 전반에서의 전략 부재 등이 실패를 부르는 공부전략이었다. 또한 기본에 충실하지 않고 추가로 알게 된 내용이나 심화 내용을 눈여겨보는 공부전략, 기출문제를 풀어 보기만 하고 관련 내용까지 깊게 공부하지 않은 전략, 많은 양을 빠르게 공부하기 위해 복습을 소홀히 한 전략, 좋아하는 과목이나 영역만을 중심으로 깊이 공부한 전략은 실패의 이유가 되는 잘못된 공부전략들이었다. 이러한 공부전략으로 최선을 다하는 것

은 기본적인 내용은 대략 알고 있다는 착각을 불러일으켰으며, 기출문제의 핵심이나 앞뒤 내용을 놓치게 되고, 아는 것은 잘 알지만 모르는 것을 여전히 모르는 상태에서 임용시험을 치르게 하여, 기본적으로 기출문제와 관련되며, 고르게 출제되는 임용시험 문제를 틀리는 이유가 되었다.

돌이켜 보면 임용시험 자체를 너무 모르고 한참 먼 길을 돌아온 것 같습니다. 최선을 다하긴 하지만 무엇이 중요한지 깨닫지 못한 채 강의에 중심을 둔 학습 패턴, 많은 어리석음과 무지 속에서 더 적극적으로 지는 타인을 위한 성실함, 정보의 홍수에서 자료 수집이나 정리하는 행동 자체에 대한 지나친 몰입 등 임용시험 준비 과정 전반에서 전략의 부재와 그러면서도 하루하루 공부시간, 밥 먹는 시간과 같은 생활습관을 고시생다움으로 율아매고 몸을 혹사시키는 것에 만족감을 얻으며 근거 없는 자신감을 가지는 등의 많은 이유에서 실패를 경험한 것 같습니다. [T01 메모01]

임용시험에 실패한 원인은 기본에 충실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공부하면서 기본적인 내용보다 추가로 알게 된 내용이나 심화 내용을 더 눈에 거보았습니다. 기출문제 역시 열심히 보긴 했지만 문제에서 핵심적으로 묻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공부는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교육학' 만큼은 내가 조금 더 많이 알고 있다는 어중간한 자신감 때문에 기본적인 내용은 눈으로 훑어보고 난 알고 있다고 착각하였고, 결국 초수 시절 교육학은 너무나 기본적인 문제를 많이 틀렸습니다. [T10 메모95]

임용시험이라는 것이 기출문제가 가장 좋은 교본임을 깨닫지 못했어요. 출제 패턴이 기출문제의 변형, 기출문제의 심화 등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알지 못하고, 기출 문제 분석을 등한시했어요. 시험 준비에 기본이라 할 수 있는 기출 분석의 토대가 없어 쌓으면 무너지고, 쌓으면 무너지고를 반복했어요. [T19 메모119]

많은 양을 빠르게 공부해야 한다는 마음을 가지게 되니 한 번 외우고 다음 진도를 나가기 바빴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놓치게 된 것이 복습입니다. 이런 공부 방법으로 인해 아는 것은 잘 알게 되었지만, 모르는 것은 여전히 모르는 상태로 넘어가는 상황이 나타났습니다. [T18 메모172]

제가 좋아하는 교육과정 과목과 특수교육학 영역들을 공부할 때는 깊게 보기도 하고 많은 자료를 찾아보기도 하고 기출문제 풀이도 자주 보고 복습과 반복학습도 잘 이루어졌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못한 교육과정 과목과 특수교육학 영역들은 기초적인 내용이나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내용만 공부하거나 기출문제 풀이를 미룬다거나 복습과 반복학습이 잘 이루어지지 않아서 과목과 영역간의 공부한 양이 차이가 났습니다. [T15 메모233]

특수교사들은 무조건 열심히 하기보다는 임용시험에서 성공을 가져오는 올바른 공부전략으로 방향을 잡고 열심히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언급하였다. 각 영역에서 기본과 기초를 철저히 이해하기 위한 공부전략, 기출문제를 효율적으로 관리하며 꼼꼼하고 세심하게 풀어보는 전략, 점수가 낮게 나온 부족한 영역의 공부를 자신 있는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전략, 좋아하는 과목과 좋아하지 않는 과목을 고르게

공부하는 전략 등은 임용시험 점수를 높이는 올바른 공부전략으로 활용되었다.

자전거를 탈 때 두 발을 굴리는 것만큼이나 양 손으로 방향을 잘 잡는 것이 중요합니다. 수험생이라면 열심히 하는 모두가 열심히 합니다. 주위를 둘러보면 열심히 하지 않은 수험생은 없습니다. 끊임없이 내가 가고 있는 방향에 대해서 확인해야 합니다. 내가 열심히 굴리고 있는 두 발이 바른 곳을 향하고 있는지 수험 생활 동안 계속 생각한다면 반드시 좋은 결과는 따라 오지 않을까요? [T19 합격수기 메모196]

초수 불합격 후 교육학, 특수교육학의 단권화 및 기출문제 분석을 하면서 마음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각 영역에서 기본, 기초를 철저히 이해하기 위해 노력했어요. 내가 아는 것이 맞는지 스스로 되물어 보고요. 심화 내용이나 눈에 잘 띄지 않는 부분 역시 열심히 보긴 했지만, 그래도 기본에 충실하며 기출문제도 많이 분석했습니다. [T10 메모97]

특수교육학뿐만 아니라 교육학도 기출문제를 오래 붙여서 공부했습니다. 이렇게 기출문제를 세심하게 풀었으며, 다르게 변형된다면 어떻게 변형될지도 생각해보았습니다. 객관식 문제의 경우 틀린 것은 왜 틀렸는지, 맞는 것은 왜 맞았는지를 공부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주관식 문제의 경우 '학생특성 또는 예시를 바꾼다면 답은 또 이렇게 되지 않을까?' 한 걸음 더 나아가 '문제는 이렇게 변형되어서 나올 수도 있겠네?'라고 생각하면서 기출문제를 공부했습니다. 이렇게 공부를 하다 보니 이해도 쑥쑥 되었으며, 1차에 대한 자신감도 커졌습니다. [T23 메모221]

공부를 하다 보면 좋아하고 잘하는 과목과 싫어하고 못하는 과목이 존재합니다. 대다수의 사람은 자신이 좋아하고 잘하는 과목만을 하지만, 적어도 임용고시에서는 싫어하고 못하는 과목을 더 열심히 해야 합니다. 그 이유는 임용 문제는 여러분이 좋아하고 잘하는 과목에서만 나오지 않기 때문이죠. 여러분들이 자신이 부족한 부분을 찾아내어 효율적으로 반복 공부를 한다면, 합격수가 코너에 글을 적고 있는 자신을 만날 수 있을 겁니다. [T18 합격수기 메모180]

작년에 공부하면서 좋아하지 않았던 교육과정 과목과 특수교육학 영역들은 기초적인 내용이나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내용만 공부하거나 기출문제 풀이를 미루거나 복습과 반복학습이 잘 이루어지지 않아 과목과 영역간의 공부량에 차이가 났습니다. 이 부분을 개선하고자 자신 있거나 좋아하는 과목과 자신 없거나 좋아하지 않는 과목을 섞어서 공부 계획을 짰습니다. 이렇게 해보니 공부할 때 지겨움도 줄어들고, 하고자 하는 의지가 높아졌습니다. [T15 합격수기 메모234]

3.3 무조건 달달 외우기 vs. 이해와 암기의 조화

특수교사들은 임용시험을 공부하면서 방대한 내용을 무슨 뜻인지 이해하지 못한 채 무조건 달달 외우려 했기 때문에 실패했다고 하였다. 이해 없이 무턱대고 외우는 공부는 투입대비 산출이 좋지 않은 비효율적인 방법으로, 공부한 내용을 쉽게 잊어버렸고, 시험장에서 문제를 이해하거나 답을 적는 데에 도움이 되지 않았다고 한다. 또한 많은 양을 한꺼번에 외우려다 보니, 외운 문장조차도 어떤 의미인지를 모른 채 외우게 되었고, 이렇게 공부한 내용은 실제 임용시험 문제를 해결하는데 적용되지 못하였다고 한다.

처음 공부를 할 때는 이해를 하지 않고 무조건 연필을 잡았습니다. 글씨를 한 줄씩 복사하여 빈 종이에 붙여넣기 하는 형식으로 공부를 하니, 토씨하나 빠지지 않고 외우기는 했지만, 이 이론이 무슨 뜻인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크게 한 바퀴를 돌리고 다시 처음으로 오니 머릿속에 남는 것은 정리되지 않은 퍼즐조각 같은 기억이었습니다. 현역 시절에는 이런 비효율적인 방법으로 공부를 하니 투입대비 산출이 좋지 못했습니다. [T18 메모171]

저는 초수 때 각론서 내용은 이해하지 못한 채 방대한 내용을 달달 외우려고 접근했습니다. 결국 무엇이 중요한지 모르다보니 무턱대고 접근했고 결국에 임용시험을 치기 전까지 공부를 다 하지 못한 채 시험을 치게 되었습니다. ... 중략 ... 저는 내용이 이해되지 않은 채 암기만 했습니다. 즉, 내용을 정확히 이해하지 않은 채 암기만 하다 보니 외웠던 내용도 쉽게 잊어버렸으며, 또한 시험장에서 문제에 대한 이해도와 답을 적는 적용 능력이 한계가 있었습니다. [T23 메모220]

이해를 바탕으로 공부한 것이 아니라 무조건 암기 위주의 공부한 것이 실패 요인입니다. 교육과정의 경우 용어를 정확하게 암기해야 한다는 압박감에 많은 양을 한꺼번에 외우려다 보니 외우고 있는 문장이 어떤 의미인지도 모른 채로 제대로 된 암기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큰 문제는 공부한 내용을 실제 임용시험 문제에 적용을 제대로 하지 못한 점이었습니다. 공부할 때 공부한 내용을 무조건 외우는 것이 아니라, 예시도 보고 상황에 따라 어떻게 적용되는지, 임용 기출문제를 보면서 어떤 식으로 개념을 풀어냈는지를 서로 연결시켜가면서 공부하지 못한 점이 가장 큰 실패의 원인이었습니다. [T15 메모134]

특수교사들은 암기 중심의 비효율적인 공부에서 벗어나 이해와 암기의 조화로운 방법을 찾아내면서 임용시험을 효율적으로 공부할 수 있었다고 하였다. 무엇인가를 공부한다는 것은 그 내용을 이해하며 자기 것으로 만들고, 그것을 말로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반복해서 보고, 본 내용을 다시 말하고 설명하면서 공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였다. 방대한 양의 공부 내용을 이해한 후 암기하는 것이 필수적이며, 이해되지 않는 부분은 표시해 놓았다가 다시 읽어보면 이해가 되는 경우가 많았다고 한다. 이렇게 이해를 동반한 암기 방법은 시간 단축에도 효과적이었다고 한다. 일부 특수교사의 경우에는 먼저 암기가 되어야 이해가 쉬어진다고 생각하여 '선암기, 후이해'의 조화를 찾아내었다.

이해와 암기와 관련이 있습니다. 책 한 권을 다 보았다고 하는 것은 정말 그 책을 내 것으로 만들고 그 지도가 내 머리 속에 있다는 뜻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내가 계속 떨어지면서 왜 떨어질까 생각하는 와중에 선배가 한 말이 기억났습니다. 정말 자기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책을 몇 번 봤다는 게 아니라 그것을 말로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고 그래서 계속 반복하면서 보고, 또 쉬는 시간이나 점심시간 등 자투리 시간에도 오늘 공부한 것들을 말하고 설명하면서 점점 더 내 것으로 만들 수 있었습니다. [T24 메모231]

합격을 위해서는 임용시험에 출제되는 방대한 범위에서 어느 정도 정리한 후, 그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고 머릿속에 암기하는 시간이 필수적이

라고 생각합니다. [T06 메모56]

이해되지 않는 부분은 포스트잇으로 표시하거나 단권화 노트에 적어놓고 다음 내용을 공부했어요. 책을 1독 했을 때 다시 그 부분을 읽어보면 이해되는 것이 많았어요. [T02 메모 235]

쓰면서 암기하는 것이 좋은 방법이긴 하나 시간이 많이 걸리고 손목에 염증까지 생기면서 너무 아팠습니다. 그러다 보니 힘들기도 하고 공부를 포기하고 싶다는 생각이 정말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초수 때는 암기하는 것에도 공부량 측면에서도 시간이 많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이러한 부분을 개선하기 위해서 재수 때는 특수교육학 내용을 이해한 후, 구두암기 방법을 사용해보니 손목도 아프지 않고 시간 단축에도 효과적이었습니다. [T04 메모236]

암기가 우선이 되어야 이해도 쉬워지고, 확실한 암기만이 확실한 답을 적을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때로는 공부하면서 이해가 잘 되지 않는 부분도 있었지만 무작정 외울 때도 있었어요. 그러다 보면 후에 이해가 될 때도 많았어요. 힘은 들었지만 꼭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T22 메모212]

3.4 비효율적인 스터디 vs. 모두가 득이 되는 스터디

특수교사들은 임용시험 실패 요인의 하나로 비효율적인 스터디 참여를 언급하였다. 공부할 양이 많은 임용시험에서 보다 효율적인 공부를 하기 위해서 스터디가 필요함을 인식하고 처음에는 의욕적으로 스터디를 계획하지만, 점차 시간이 흐르면서 공부를 위한 스터디가 아니라 스터디를 위한 공부로 주객이 전도되는 현상이 나타났다고 하였다. 스터디에서 발표하기 위해 베타치기로 준비하기, 스터디 해야 하는 양만큼만 공부하기, 스터디 자료 만드는 데에 시간 투자하고 자료를 공유하는 것에 만족하기, 자신의 전체적인 공부 계획과 어울리지 못하는 스터디, 다른 사람의 시험공부를 성실하게 도와주는 스터디, 혼자 공부하는 것보다 못한 스터디, 모임 시간이 부담스럽고 스트레스 받는 스터디 등은 임용시험 실패를 가져오는 비효율적인 스터디의 모습들이다.

공부할 양이 많은 임용시험에서 스터디는 누구에게나 당연한 학습 방법이에요. 그러나 누구에게나 당연한 학습 방법은 없는 것 같아요. 연초 스터디를 구하고 함께 계획을 짜고 분량이나 책을 나누고 할 때는 의욕이 넘쳤어요.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공부를 위한 스터디가 아니라 스터디를 위한 공부를 하고 있는 내가 보였어요. 스터디 날에 발표를 위해 베타치기를 하고, 충분히 공부를 더해도 되지만 스터디 해야 하는 양만큼 하고 이 정도면 충분하지라고 생각하고, 가기 싫거나 빠지고 싶어 짜증이 나는 날에는 공부에 손이 잡히지도 않았어요. [T03 메모36]

스터디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했어요. 내 의지가 아니라 스터디를 위해서 자료를 준비하고 모여서 이야기하고 그게 끝이었어요. 스터디를 통해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스터디 자료를 만들기 위해 시간을 썼던 거예요. [T05 메모46]

성실하게 다른 사람 시험공부를 도와주는 듯한 스터디, 과제 자체를 위한 진도 확인, 함께 자료를 공유하는 것에 만족하는 스터디 방법 등은

제대로 된 실패를 맛보게 하는 큰 이유였습니다. [T01 메모7]

그를 스테디를 전체 공부 계획 속에 반영하지 못했어요. 그를 스테디가 나의 전체적인 공부 계획에 자연스럽게 녹아들어야 성공적인 텐데 그렇게 하지 못해서, 오히려 시간만 소모하고 얻는 것은 도리어 혼자 공부하는 것보다 못했어요. [T19 메모184]

매년 스테디 모임을 진행했지만 나에게 맞는 방법을 찾지 못해서 효율이 떨어지고 스테디 모임을 하는 시간이 부담스럽기까지 했어요. 스테디 모임 시간에 뒤처진다는 생각에 스트레스를 받고 스테디 모임보다는 혼자 공부하는 게 낫다는 생각에 스테디 모임에서 빠지곤 했어요. 또 모임에서 빠지고 나면 더 남들보다 뒤처진다는 생각에 스트레스를 받는 악순환이 반복되었어요. [T20 메모198]

특수교사들은 비효율적인 스테디 참여를 통해 임용시험 실패를 경험한 이후에도 스테디를 멈춘 것이 아니라, 모두가 이득이 되는 스테디를 만들고 참여하여 많은 이득을 얻었으며, 이러한 긍정적인 스테디 참여 경험이 임용시험 성공 요인이 되었다고 한다. 스테디 구성원 모두가 원하는 스테디는 구성원들 간에 서로 이야기를 경청하고 적극적으로 공유하는 방식으로 운영되었는데, 깊이 있게 공부하는 구성원은 어려운 내용을 동료들에게 쉽게 설명해 주고, 정리를 잘 못하는 구성원은 보기 좋게 정리한 자료를 제공받고, 자율적인 공부가 어려운 구성원은 서로 약속한 공부 영역을 다하기 위해 노력하며 진도를 나가고, 서로 문제를 내고 풀어보면서 미처 생각하지 못한 것들도 공부하고, 서로 잘못 이해한 부분을 올바르게 잡아주고, 자신의 공부 계획안에서 스테디 준비가 이루어지도록 하였다. 또한 모두가 득이 되는 스테디에서는 선의의 경쟁을 통해 자신의 학습 정도를 점검할 수 있었고, 서로 공부한 내용을 설명하면서 정교화하거나, 자료를 정리할 때에 역할을 분담하여 효율적으로 공부할 수 있었다고 한다. 이러한 스테디 구성원은 같은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든든한 동료가 되어 긍정적인 자극을 주었으며, 함께 임용시험 실패를 극복하고 나아가는데 중요한 존재가 되었다고 한다.

1, 2차 시험 준비 모두 스테디원들의 이야기를 경청하고 적극적으로 공유했습니다. 깊이 있게 공부해 어려운 내용을 동료들에게 쉽게 설명해 주었고, 동료들은 정리를 잘 못하는 저에게 보기 좋게 정리한 자료들을 제공해 줬습니다. 이를 통해 상호간에 큰 발전이 있었습니다. [T21 메모207]

물론 스테디는 도움이 많이 됐습니다. 어느 한 부분에 깊이 빠지는 문제점이 있었으나 스테디에서 정해지는 주간 할당량을 맞추려면 진도를 나갈 수 밖에 없어 자연스럽게 해결되었습니다. 또한 같은 목표로 나아가는 동료들은 든든함과 긍정적인 자극을 주었습니다. [T21 메모205]

저의 경우 자율적으로 공부하면 꾸준히 공부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

서 스테디와 함께 매주 공부할 영역을 설정함으로써 가끔은 기록이 있었지만 스테디 원과 약속한 공부 영역을 다하기 위하여 노력할 수 있었습니다. 또 스테디 친구들과 서로 정보 공유를 많이 했습니다.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을 문제로 내고, 스테디 원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을 문제로 풀면 내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것들도 공부할 수 있어서 공부에 효과가 있었습니다. 또한 서로 문제를 같이 풀어봄으로써, 내가 잘못 이해한 부분을 스테디 원이 고쳐줄 수 있으며, 또한 스테디 원이 잘못 이해한 부분을 내가 바로 잡아줌으로써 서로 WIN-WIN 할 수 있었습니다. [T23 메모223]

논술, 전공, 교육학 등 스테디를 진행하면서 스테디의 형식을 거창하게 갖추기보다는 내실 있게 나의 계획안에 스테디를 모두 집어넣기 위해 노력했어요. 그래서 스테디 준비를 따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공부의 흐름 안에서 스테디 준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계획하고 실행했어요. 결과는 매우 성공적이었어요. 스테디를 많이 하는 것보다 어떻게 하는가 훨씬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지요. [T19 메모188]

같이 스테디한 친구들이 있었기에 임용시험 실패를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멘탈이 약한 저에게 친구들이 용기를 북돋아 주었습니다. 선의의 경쟁을 통하여 매일 매일 나의 학습 정도를 비교할 수 있었으며, 제가 공부한 내용을 친구들에게 설명해봄으로써 정교하게 공부할 수 있었습니다. 스테디를 할 때, 각론서를 정리할 때에도 같이 공부한 친구들과 역할을 나누어 효과적인 공부를 할 수 있었습니다. [T16 메모156]

3.5 불안함과 자신감 부족 vs. 긍정적인 마음가짐

특수교사들은 임용시험을 준비하는 과정에서의 불안한 마음과 자신감 부족을 임용시험 실패 요인으로 언급하였다. 불안한 마음의 원인은 단번에 임용시험에 합격하기 어렵다는 생각과 그 때문에 재수하는 것은 당연하게 생각하고 단일한 마음자세로 공부하는 데에서 비롯되었다. 이러한 불안감은 거듭된 실패로 인해 임용공부 시간이 길어지면서 더욱 커졌고, 불안감으로 잠을 자지 못해서 집중에 어려움을 야기하거나 불안감을 극복한답시고 무리한 계획을 세우고 지키지 못해 심하게 좌절하는 악순환의 원인이 되었다고 한다. 불안한 마음과 함께 다가온 자신감 부족은 공부만 해야 하는 고시생의 단조로운 생활에 대한 답답함, 경제적 여유 없음으로 생기는 마음의 여유 없음, 공부에만 올인해도 합격할 수 있겠느냐는 불확실성으로 이어졌으며, 스스로를 괴롭히면서 할 수 있었던 공부도 하지 못하게 하는 결과로 이어졌다.

안일한 마음자세가 있었어요. 졸업과 동시에 보는 임용시험에서 합격하는 비율이 낮기 때문에 한 번에 임용시험에 합격하겠다는 확신이 저에게도 없었어요. 재수가 당연하게 생각되는 분위기 속에서 정말 열심히 해서 한 번에 합격하겠다는 마음이 낮아서 공부 또한 안일하게 했어요. 합격하지 못하면 어떻게 해야 하지 라는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있어서 마음이 안정되지 못한 면이 있었어요. [T09 메모82]

평소 성격도 걱정이 있으면 잠을 자지 못하고 밤을 꼬박 새는 일이 많았던 터라 4학년이 되기 전부터 임용에 대한 불안감이 상당히 컸습니

다. 그래서 무리한 계획표를 세우고 이를 지키지 못했을 때 심하게 좌절하고 불안감으로 잠을 자지 못해 막상 공부할 땐 집중하지 못하고 계속 자기도 했습니다. [T10 메모96]

계속된 임용시험 실패로 자신감과 자존감이 많이 떨어진 상태였습니다. 무엇보다 공부만 집중하기에는 고시생으로서의 단조로운 생활에 답답함을 느꼈으며, 경제적 여유가 없으니 마음의 여유 또한 없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무엇보다 다시 공부에만 올인 한다고 임용에 합격할 수 있겠느냐는 불확실성이 더 마음을 힘들게 하였던 것 같습니다. [T17 메모164]

임용시험 실패를 경험하면서 불안한 마음과 자신감 부족은 더욱 커졌을 텐데도 불구하고 많은 특수교사들이 긍정적인 마음가짐을 갖추으로써 임용시험에 합격하는 결과를 얻었다고 한다. 실패의 결과를 받아들이고 조금 더 열심히 하면 자신에게도 반드시 기회가 온다는 희망을 갖게 되었으며, 점점 더 어려워지는 상황 속에서도 꼭 합격하고 싶다는 간절한 마음으로 최선을 다하였다고 한다. 이번 시험에서는 반드시 합격한다 생각하고 떨어진다라는 생각을 아예 하지 않으니, 마음이 불안하지 않고 평온해져서 꾸준히 공부해 집중할 수 있었다고 한다. 이렇게 긍정적으로 생각하며 꿈을 이룬 자신의 모습을 상상하면서 건강한 마음을 가지려고 노력해서, 공부가 더 효율적으로 이루어지고 자신감도 높아지는 결과를 얻었다고 한다. 이러한 긍정적인 마음가짐을 갖게 된 데에는 선배, 친구, 가족 등의 여러 사람들의 부담감을 덜어주는 지지와 ‘너는 될 수 있다’는 믿음이 크게 도움이 되었다고 한다.

해를 거듭해서 첫 해보다는 재수, 삼수에서 이전 시험 결과에 대한 실패를 받아들이기 때 소진감이 더 커지는 만큼, 반대로 다시 심기일전해서 도전하고자 하는 마음, 조금 더 열심히 하면 내에게도 기회와 때가 반드시 오게 된다고 믿게 되는 희망, 회복력이 더 빨랐던 게 사실입니다. [T01 메모3]

제가 공부하면서 가장 간절하게 합격을 희망했을 때는 공부할 시간이 많았을 때도 아니고, 최적의 공부 환경이 갖춰진 때도 아니었으며, 금전적으로도 여유가 없었을 때지만 ‘꼭 합격하고 싶다’는 마음이 가장 컸을 때 합격했습니다. ‘꼭 합격하고 싶다’는 마음을 가지게 되면서 시간이 없는 상황에서도 기출문제를 10월까지 계속 분석해나가고, 핵심내용을 추려내려고 더 치열하게 고민했었고, 자칫 지칠 수 있었던 공부 패턴을 보충해 나가기 위해 주말스터디와 생활스터디 등으로 그 부족한 부분을 보충하기 위해 애썼습니다. 초수 때 책상에 앉아서 무엇보다 해야 할 일을 산더미같이 쌓여있었던 것도 모두 합격하고 싶다는 간절한 마음에서 나 자신을 보다 능동적으로 움직이게 만들었습니다. 모든 일이 마음먹은 대로 되는 것은 아니지만, 최선을 다하기 위해서는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해야 하는데, 이를 움직이게 하는 것이 마음가짐이라고 생각합니다. [T06 메모 58]

1차에 합격하고 2차에서 떨어진 임용시험 경험을 통해서 임용시험이

생각처럼 어려운 것만은 아니며, 이번 시험에서는 반드시 합격한다고 생각하고 떨어진다라는 생각은 아예 하지 않았어요. 떨어진다라는 생각을 하지 않으니 마음이 불안하지 않고 평온해져서 꾸준히 공부에 집중할 수 있었어요. [T09 메모84]

삼수 때까지 저에 대한 낮은 기대와 과소평가하는 마음으로 인해 공부에 대한 효율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꿈을 이룬 저의 모습을 상상하면서 건강한 마음을 가지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반성문에 썼던 것처럼 할 점을 고쳐나가면서 공부가 더 잘 되고 효율성이 높아지고 저도 공부를 하면 되고 압기를 하면 압기가 되는 모습을 보며 스스로 저에 대한 높은 기대를 하게 되면서 자신감도 높아졌습니다. 주변 사람들도 저에게 응원해주고 저 스스로도 ‘나는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니 자연스럽게 공부에 자신감이 붙었습니다. 태교하는 것처럼 좋은 것만 보고, 좋은 것만 듣고, 좋은 생각만 하며 지냈습니다. [T15 메모140]

좋은 친구들을 만나 서로 격려해주고 위로해주면서 정말 큰 힘을 받았습니다. 초수 때 방황하던 모습을 본 부모님도 그 때는 합격 여부보다 제가 방황하는 모습에 실망도 하시고 속상해 하셨는데 재수 때는 이번엔 떨어져도 괜찮다며 한 번 더 해보라고 하셨어요. 온 가족들이 저를 지지해 주고 믿어주었던 것도 정말 힘이 많이 되었습니다. [T10 메모 102]

3.6 내가 나를 관리하지 못한 vs. 무너지지 않는 나만의 루틴

특수교사들은 임용시험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충동적이고, 무계획적이고, 시간 관리를 하지 못하고, 생활 습관을 관리하지 못하는 등의 자기 스스로를 관리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임용시험에서 실패했다고 한다. 공부할 양이 많아서 공부 시간을 무리하게 늘린 것이 오히려 깨어있는 낮 시간의 집중력을 흐트리고 생활 패턴을 깨뜨리는 좋지 않은 결과로 나타났으며, 시간낭비로 생각하고 운동을 하지 않은 것이 오히려 공부에는 역효과로 나타났다고 한다. 또한 스트레스를 풀어주지 못해서 슬럼프를 맞아 어려움을 겪기도 하였고, 스트레스를 과하게 해소하는 바람에 슬럼프에 굴복하는 좋지 않은 결과를 맞이하기도 하였다고 한다.

저는 충동적인 수험생이었어요. 조금만 흔들리면 뿌리 채 뽑힐 듯이 흔들렸어요. 기복이 적고 무던하게 나아가야 시험에 합격할 수 있을 텐데, 과거의 나는 그러지 못했어요. 이렇게 멘탈이 흔들리다 보니 시험 준비의 루틴이 만들어질 수 없었어요. 장기적으로 월별로 해야 할 공부에 대한 청사진을 그려두고 주별 계획, 일별 계획을 체계적으로 잡았어야 했는데, 그러지 못했어요. 주먹구구식으로 공부를 하였으니, 합격은 어려운 것이 당연했어요. [T19 메모185]

습관 자체가 무계획이었어요. 계획적인 생활이 아니라 잠도 자고 싶은 대로 자고 늦게 일어나서 게임도 하고 싶은 대로 다했어요. 생각 자체를 그냥 내년에 제대로 해야지 생각하고 생활했어요. 여름방학이 지나고 뒤늦게 발등에 불이 떨어져서 이것저것 보면서 공부하기 시작했지만 마음만 불안해지고 이미 늦었어요. [T05 메모47]

저는 임용시험 도전 초반에는 책상에 앉아서도 집중하지 못하고, 휴대폰

을 보거나 쓸데없는 일들에 매진하는 등 공부 습관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아서 공부 시간을 빼앗겼고, 4, 5수 때는 기간제 교사로 근무하던 학교생활과 병행하다 보니 저녁시간에만 공부를 할 수 있는 환경에서 어떻게 효율적으로 시간을 관리하는지 터득하지 못해 합격을 위해 필요한 필수 읽기 시간들을 빼기게 되었습니다. [T06 메모56]

공부할 양이 많아서 하루에 공부를 많이 해야 한다는 생각에 매일 공부 시간을 길게 잡았는데 오히려 늦게 자게 되면서 아침에 일어나는 것이 힘들어졌습니다. 잠이 부족하다보니 공부하던 중간에 졸기도 하고 피로가 금방 쌓였고 늦잠을 잔 날이 생기면서 생활 패턴이 꼬이기도 했습니다. 운동을 하지 않아서 살이 찌고 허리와 어깨가 아파서 제대로 앉아 있기가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따로 시간을 내서 운동하는 것은 시간낭비라고 생각되어 운동을 등한시했고 그만큼 체력이 떨어졌습니다. [T15 메모135]

어떤 일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고 의미부여를 많이 하다보면 당연히 심리적 스트레스가 쌓이기 마련입니다. 어느 순간 갑자기 찾아올 수 있는 우울, 무기력감, 압박감 등은 자꾸 풀어주는 노력 없이는 그대로 심한 스트레스로 쌓여 자칫 중요한 시기에 슬럼프로 찾아 올 수 있습니다. [T01 합격수기 메모79]

저는 슬럼프에 굴복했어요. 슬럼프를 이기기 위해서는 스트레스를 관리하는 적정선을 넘지 않는 수준의 방법이 필요하지만 나는 초수 때 그 적정선을 넘어서 스트레스를 해소했기 때문에 실패했어요. [T05 메모51]

특수교사들은 임용시험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생활 습관을 적절하게 관리하고, 자신만의 공부 계획을 세우고 실천하며, 공부의 흐름을 깨지 않는 규칙적인 생활 패턴을 유지하고, 시간을 내어 체력을 쌓고, 후유증이 없는 적절한 수준에서 스트레스를 푸는 등의 자신만의 무너지지 않는 루틴을 만들고 관리하였기 때문에 임용시험에 합격할 수 있었다고 한다. 오랜 기간 노력해야 하는 임용시험에서는 중장기적인 큰 계획을 세워 공부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이며, 단기 계획을 세우고 하루하루 실천해 가는 것이 성취감을 맛보는 기회가 되었다고 한다. 체력 관리를 위한 시간이나 스트레스를 풀기 위한 여가활동도 공부 계획을 무너뜨리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일정한 루틴을 만들어 관리한 것이 장기간 준비해야 하는 임용시험에서 성공적인 자기관리 전략이었음을 언급하였다.

생활 습관을 다시 잡았어요. 밤에 공부 더 잘 된다는 핑계로 밤늦게 까지 깨어 있고 늦게 자고 늦게 일어나서 느즈막히 학교로 가곤 했는데, 4수 생활을 시작하면서 아침 7시 40분에 기상, 밤 1시 전에 취침하는 것으로 정하고 꼭 지키려고 노력했어요. 그리고 점심, 저녁 식사 시간도 정해놓고 생활하니 매일매일 계획을 따서 그 양만큼 공부하는 것이 수월하고 성취감도 들었어요. 매일 책상에 앉아있어서 체력이 많이 떨어지는데, 규칙적으로 생활하니 오히려 편해지는 느낌이 들었어요. [T20 메모200]

합격을 목표로 한 나만의 계획을 작성했어요. 인강, 스터디, 개인공부,

식사시간, 쉬는 시간과 요일을 나에게 맞게 하여 최고의 공부 상태를 유지할 수 있게끔 했어요. [T02 메모26]

임용시험은 장기간의 노력이 요구되는 시험입니다. 처음에는 5개월, 3개월 단위로 크게 계획을 세우고, 점차 2개월, 한 달 단위로 쪼개어 영역별로 공부를 어떻게 할 것인지 계획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도 큰 계획을 세운 후, 매일 공부한 양을 플래너에 기록해 나갔습니다. [T04 메모80]

아침잠이 많았지만 최대한 규칙적인 생활을 하고자 노력하였고, 외출을 좋아하지만 최대한 책상 앞에 앉아있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잠시 외출하는 것은 좋을 수도 있지만 공부 흐름을 깨뜨리는 요인이 되었기에 참고 또 참았던 것 같습니다. 대신 일정시간에 헬스장을 이용하고, 배드민턴장을 이용하여 체력을 쌓고 스트레스를 해소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T12 메모113]

스스로의 정신 자세와 스트레스를 관리하기 위한 방법을 찾아왔어요. 임용시험은 장기간 공부해야 하기 때문에 1년을 끌고 가기 위해서 집중력을 흐트러트리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음악을 정해진 시간동안 듣는다면 지, 산책을 하는 등의 방법을 사용하면서 정신 자세 및 스트레스를 관리했어요. [T13 메모118]

중간 기말고사의 경우는 1-2주 공부하면 만족할 만한 성적을 낼 수 있지만, 임용고사는 그렇지 않습니다. 잊어버린 부분을 끊임없이 찾고, 이해하고, 외우고, 인출하는 과정의 연속이죠. 이런 일이 짧게는 수개월 길게는 수년 반복되다 보면 극도의 스트레스로 공부 효율은 떨어지게 된답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한 방법이 자신만의 스트레스 관리법을 찾는 것이죠. 운동하기, 영화 보기 등 자신에게 맞는 방법을 찾는다면 공부 효율은 올라가게 될 것입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공부하는 시간보다 스트레스를 푸는 시간이 더 길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T18 합격수기 메모 181]

4. 논의 및 제언

이 연구에서는 임용시험에서 실패와 성공을 경험한 특수교사들의 임용시험 실패 요인과 성공 요인이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탐구하였다. 연구 결과를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임용시험 실패를 경험해 본 특수교사들은 임용시험 실패 요인을 남 따라 하기식의 공부, 실패를 부르는 공부 전략, 무조건 달달 외우기, 비효율적인 스터디와 같은 공부 방식의 문제에 두었으며, 불안함과 자신감 부족이라는 마음가짐의 문제와 시간 관리나 스트레스 관리와 같은 자기 관리의 부족에 두었다.

둘째, 임용시험 실패를 딛고 성공을 경험한 특수교사들은 임용시험 성공 요인을 자신만의 공부 스타일, 올바른 공부 전략, 이해와 암기의 조화, 모두가 득이 되는 스터디와 같은 공부 방식을 만들고 실행한 데서 찾았으며, 어려운 상황에서도 긍정적인 마음가짐을 갖고 무너지지 않는 자신만의 루틴을 만들어 관리한 데서 찾았다.

이러한 연구 결과를 선행연구와 비교해 보면, 일부 유사

한 내용을 찾아볼 수 있다. 이 연구에서 임용시험 실패 요인으로 드러난 실패를 부르는 공부전략, 무조건 달달 외우기, 불안함과 자신감 부족은 비효율적인 학습방법을 언급한 연구[6], 암기 위주의 공부를 지적한 연구[8], 실패 경험에서 오는 불안감을 제기한 연구[12] 결과와 유사하다.

또한 임용시험 성공 요인으로 드러난 자신만의 공부 스타일, 긍정적인 마음가짐은 시행착오를 거치며 자신만의 학습방법을 터득하였다는 연구[8]와 현실에서 이를 수 있다는 믿음을 이어가면서 합격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형성했다는 연구[9] 결과와 유사하다. 이렇게 유사한 연구 결과들이 나타난 것은 이 연구에 참여한 특수교사들도 유치원 교사, 초등학교 교사, 중등학교 교사들과 유사한 형태의 교원 임용시험을 경험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유추해 볼 수 있다.

반면에 이 연구에서 밝혀낸 스터디 활동에 관한 연구 결과와 수험생의 자기 관리에 관한 내용은 선행연구들과는 차별화된 연구 결과로 볼 수 있다. 비효율적인 스터디 참여를 통해 임용시험에서 실패한 후, 그러한 스터디 경험을 토대로 모두가 득이 되는 스터디를 완성하면서 임용시험에 성공하게 되었다는 연구 결과와 시간 관리나 스트레스 관리에서 자기 자신을 관리하지 못하여 임용시험에 실패하게 되었고 이후에는 무너지지 않은 자신만의 루틴을 만들어 자기 관리에 성공함으로써 임용시험에 성공하게 되었다는 연구 결과는 선행연구에서 찾아볼 수 없는 매우 구체적이고 의미 있는 결과로 볼 수 있다.

지금까지의 연구 결과와 논의를 토대로, 다음과 같은 활용 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첫째, 교원 임용시험을 준비하는 많은 수험생들은 이 연구에서 얻은 결과를 토대로 자신의 공부 방식이나 마음가짐, 자기 관리 등을 점검해 보고, 보다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공부를 위한 개선 방안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연구의 결과를 토대로 실패를 부르는 공부 방식을 따르고 있는 것은 아닌지 점검해 보고, 자신에게 어울리는 성공적인 공부 방식은 무엇일지에 대해 성찰해 보는 것은 수험생에게 매우 의미 있는 일이 될 것이다.

둘째, 교사를 양성하는 교원양성기관에서는 이 연구에서 얻은 결과를 토대로 예비교사들을 지도하고 안내할 수 있을 것이다. 이해와 암기의 조화로운 공부 방법, 비효율적인 스터디를 피해 모두가 득이 되는 스터디를 만들어가는 방법 등의 내용은 예비교사들의 교과 및 비교과 프로그램을 통해 지도하고 안내해 주어야 하는 의미 있는 지도 내용이라 할 수 있다.

REFERENCES

- [1] S. C. Kwak, Y. S. Nam, & J. Y. Hong. (2008). An analysis of the special teacher recruitment examination for elementary school. *The Journal of Special Education: Theory and Practice*, 9(2), 269-290.
- [2] S. C. Kim, S. K. Hong, & Y. H. Jung. (2017). The exploration of problems and improvement of elementary teacher employment examination. *Journal of Education & Culture*, 23(2), 259-284.
- [3] U. J. Kim. (2013). Research on the improvement of teacher appointment examination system. *Korean Education Inquiry*, 31(4), 75-93.
- [4] Y. Y. Hong & E. J. Chang. (2019). A qualitative study on the interpersonal trauma experience in counseling psychology major university students and their growth process as counselors. *Journal of Convergence for Information Technology*, 9(5), 147-157.
- [5] J. H. Choi, Y. M. Yang, & S. U. Kim. (2019). Qualitative research on gambling experience of male college students: Focused on sports Toto. *Journal of Convergence for Information Technology*, 9(3), 44-55.
- [6] S. B. Shin & D. K. Lee. (2016). A story on the to be public kindergarten teachers with trying, failing and overcoming. *The Journal of Korea Open Association for Early Childhood Education*, 21(1), 1-33.
- [7] H. J. Choi & Y. S. Kwon. (2017). The meaning of novice teachers' experience of the teacher certification examination for public kindergartens on their adaptation process of teaching profession. *The Journal of Eco Early Childhood Education & Care*, 16(3), 1-30.
- [8] J. Y. Cho & H. H. Cho. (2017). A narrative inquiry into elementary teacher candidates' learning experiences and participation in the qualifying test for teachers. *Journal of Research in Curriculum & Instruction*, 21(4), 398-410.
- [9] D. H. Kim & Y. W. Pack. (2011). Physical education majored collegiate students' experience in preparation of secondary school teacher selection test: A grounded theory approach. *Korean Journal of Sociology of Sport*, 24(1), 79-94.
- [10] D. H. Kim. (2012). In search of my life's hope: Narrative inquiry about the meaning of the life of a third-time repeater for the secondary school teacher

- selection test in physical education. *Korean Journal of Sport Science*, 23(3), 598-620.
- [11] J. L. Park. (2017). A study on the preparation experience of appointment exam for the preliminary PE teachers. *The Journal of Learner-Centered Curriculum and Instruction*, 17(23), 289-309.
- [12] E. Y. Min & Y. J. Jang. (2017). A qualitative study on the lives of non-tenured, secondary school teachers who are preparing for teachers' exam.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18(12), 359-371.
- [13] S. H. Lee, S. H. Lee, & E. J. An. (2017). Qualitative inquiry into methods to improve teacher education program and recruitment examination for early childhood special education teachers based on teachers' experiences. *Korean Journal of Early Childhood Special Education*, 17(3), 33-64.
- [14] J. H. Jung & J. Y. Park. (2017). A qualitative study on the perceptions of secondary special education teachers regarding the national teacher exam. *Journal of Special Education*, 24(2), 185-210.
- [15] J. Corbin & A. Strauss. (2009). *Basics of qualitative research: Techniques and procedures for developing grounded theory*(3th ed.). CA: Sage Publication, Inc.

박 미 정(Mee-Jung Pack)

[정회원]



- 2012년 2월 : 우석대학교 대학원 특수교육학과(문학박사)
- 2014년 3월 ~ 현재 : 위덕대학교 특수교육학부 교수
- 관심분야 : 특수교육학, 의사소통장애, 청각장애
- E-Mail : mjp321@uu.ac.kr

남 윤 석(Yun-Sug Nam)

[정회원]



- 1997년 2월 : 공주대학교 대학원 특수교육과(교육학박사)
- 2007년 3월 ~ 현재 : 위덕대학교 특수교육학부 교수
- 관심분야 : 특수교육학, 교육과정, 교육공학
- E-Mail : ybs408@hanmail.net